

2023년 10-1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10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대중·대미 수출 특징 분석	16
[KDB미래전략연구소(2023년 9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美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vs. 中 기준을 인하 단행

- 미국은 8월 실물지표들의 증가세 속에 체감·선행지수 약세 등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 일본은 7월 경제지표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日銀(BOJ)이 현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의 유지를 결정하고, 유로존은 7월 실물지표들의 부진으로 역내 경기하강 우려 속에도 유럽중앙銀(ECB)이 '22.7월 이후 10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
- 중국은 8월 경제지표들의 반등에도 내·외수 회복세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인민은행이 올 3월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을 인하(25bp, 7.4%)를 단행
- 달러화는 9월중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강세를 보이고, 10월 들어 연준의 추가 긴축 제한 전망과 중동의 정정 불안 등으로 하락
- 유가는 9월에 사우디의 감산 연장과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하고, 10월초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와 중동의 정정 불안 등으로 변동성 확대

□ 국내경기 : 8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2.2%, 소비 소폭 감소·투자 증가

-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전월비 5.5%)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의 증가세(0.3%)가 이어지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2.2%)
 - 소매판매는 내구재(-1.1%) 등의 판매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전월비 0.3%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운송장비(13.1%)에서 큰 폭 증가하면서 3.6% 증가

□ 금 융 : 9월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둔화 전환, 10월 초순(10월 4일 ~ 12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전환

-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현저히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9월에 인플레 우려 심화, 美 국채금리 상승세 등으로 상승하고, 10월 들어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중동의 정정 불안 등으로 하락세
- 원/달러 환율은 9월중 中 위안화 약세, 中·일 당국의 구두 개입 발언으로 제한적 상승세를 보이고, 10월 들어 글로벌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하락 전환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6%, 서비스업생산 +1.7%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와 반도체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기계장비, 섬유제품, 1차금속,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0.6% 감소
 - 제조업ICT와 중공업 생산은 증가하고, 경공업 생산은 감소폭이 축소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1.7% 증가

□ 고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지난 9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소폭 감소에 그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0.9% → 1.1%)

□ 수출입 : 9월 수출 -4.4%, 수입 -16.5%,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

-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4% 감소한 547억 달러, 수입도 16.5% 감소한 51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반도체·석유제품·가전 등에서 올해 월간 기준 최대 실적치를 기록한 데다, 자동차·선박·일반기계·가전·디스플레이·철강 등 6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미국·EU·중남미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비 감소율이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8.3% → -4.4%)

1. 해외경제

□ 미국 : 8월 경제지표 혼조, 연준(Fed) 연내 추가 금리 인상(25bp) 시사

○ 8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체감지표들의 혼조세와 선행지수 하락세 등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여전히 혼조. 연준이 연말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25bp) 시사

- 산업생산은 광업(전월비 1.4%)과 유틸리티(0.9%), 제조업(0.1%)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개월 연속 증가(0.4%)하고, 소매판매는 주유소(1.9%)와 자동차·부품(0.3%) 등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0.6%)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여전히 기준치(50)를 하회하는 수준이나, 전월에 이어 추가 상승한 반면에,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44.8)와 미래 기대지수(80.2)가 동반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전월비 18.7만 개)한 영향에도 실업률이 3개월 만에 상승하고,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부터 17개월 연속 하락세
-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연말 경제성장률과 물가(PCE)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1%와 3.3%로 상향하고, 연내 추가 금리 인상(25bp)도 시사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9	2.1	2.6 (0.9)	2.0 (1.8)	2.1 (2.5)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6 (-0.3)	-0.1 (-0.9)	0.2 (6.8)	-0.3 (1.2)	-0.4 (1.5)	0.7 (1.6)	0.4 (0.8)
내구재수주	18.4	8.3	0.5	-0.1	5.4	2.0	4.3	-5.6	0.1
소매판매	18.2	9.7	0.1	1.1	0.1	0.7	0.2	0.5	0.6
소비자물가	4.7	8.0	1.0	0.9	0.7	0.1	0.2	0.2	0.6
실업률(%)	5.4	3.6	3.6	3.5	3.6	3.7	3.6	3.5	3.8
무역수지(10억\$)	-841.6	-951.2	-213.5	-201.8	-203.5	-66.8	-63.7	-64.7	-58.3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49.2	47.1	46.7	46.9	46.0	46.4	47.6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4.2	104.5	105.4	102.5	110.1	114.0	106.1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8	111.6	109.4	106.7	106.7	106.1	105.8	105.4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7월 실물지표 혼조, BOJ 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기조 유지

- 7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수입의 대폭 감소(-13.6%)에도 수출 감소(-0.3%) 여파로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 日 정부가 고물가 등의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밝힌 가운데 日銀(BOJ)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 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1.0	0.1	0.8	1.2				
광공업생산	5.8	0.0	-1.7	-1.8	1.4	0.7	-2.2	2.4	-1.8
민간기계수주	6.0	5.5	-4.7	2.6	-3.2	5.5	-7.6	2.7	-1.1
소매판매	2.0	2.6	1.2	2.5	0.5	-1.1	1.4	-0.6	2.2
소비자물가	-0.2	2.5	1.1	0.5	0.7	0.6	0.0	0.2	0.4
실업률(%)	2.8	2.6	2.5	2.6	2.6	2.6	2.6	2.5	2.7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662	-5,185	-1,779	-436	-1,382	39	-66
경기선행지수 ¹⁾	114.2	112.0	109.7	108.3	108.6	108.0	109.0	108.8	107.6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8월 내·외수 지표 반등, 인민은행 6개월 만에 기준을 인하 단행

- 지난 8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재차 확대되고,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내·외수 회복세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 부동산 위기 등 中 경제위기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8월 단기 금리 인하에 이어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을 인하(25bp, 7.4%) 단행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2.9	4.5	6.3				
산업생산	9.3	3.4	2.8	3.2	4.5	3.5	4.4	3.7	4.5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5.1	3.8	4.0	3.8	3.4	3.2
소매판매	12.4	-0.8	-2.7	7.1	11.4	12.7	3.1	2.5	4.6
소비자물가	0.9	2.0	1.8	1.3	0.1	0.2	0.0	-0.3	0.1
수출(달러화기준)	29.6	6.1	-8.0	-1.9	-4.8	-7.3	-12.4	-14.3	-8.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7월 실물지표 약세, ECB 고물가 대응 위한 금리 인상 단행

- 7월 실물지표들의 감소와 체감지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역내 경기 하강 우려감이 고조.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0.9% → 0.7%) 하면서도 고물가 대응을 위해 25bp의 금리 인상('22.7월부터 10번째)을 단행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3	3.5	-0.1	0.1	0.1				
산업생산	8.8	2.1	-1.0	-0.3	-1.0	1.3	0.1	0.4	-1.1
소매판매	5.1	0.9	-1.1	-0.2	0.1	0.0	0.6	0.2	-0.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10.0	8.0	6.2	7.0	6.1	5.5	5.3
무역수지(10억유로)	98.2	-343.0	-64.1	-5.9	0.3	-8.1	-0.2	8.6	2.9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9	95.3	99.2	96.9	98.9	96.4	95.3	94.5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전환 & 유가 변동성 확대

- 달러화는 9월중 인플레이 우려 심화로 인한 美 국채금리 상승세 속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강세를 보이고, 10월 들어 연준의 추가 긴축 제한 가능성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하락 전환
- 유가는 9월 美 달러화 강세 여파에도 사우디의 감산 연장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세, 연말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 우려 등으로 상승하고, 10월 들어 고금리로 인한 원유 수요 둔화 가능성과 중동의 정정 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12월
엔/달러	130.09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49.81
달러/유로	1.0863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28
미 국채 (10년만기)	3.51	3.92	3.47	3.42	3.64	3.84	3.96	4.11	4.57	4.70
WTI유	78.9	77.1	75.7	76.8	68.1	70.6	81.8	83.6	90.8	82.9
두바이유	79.3	81.3	76.8	78.9	72.1	76.1	85.6	87.2	92.9	88.6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8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2.2%, 소비 소폭 감소·투자 증가

○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전월비 5.5%)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의 증가세(0.3%)가 이어지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2.2%)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3.8%)에서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13.4%)와 기계장비(9.7%)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5.5%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0.3%)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GDP성장률	4.3	2.6*	1.4* (-0.3*)	0.9* (0.3*)	0.9**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3.3* (-0.5*)	4.6* (0.6*)	1.5**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6.5* (2.4*)	5.9* (-5.0*)	3.9** (-0.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8* (1.3*)	1.9* (1.3*)	2.2** (-0.3**)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9 (-1.4)	1.2 (0.7)	-0.5 (0.3)	-1.4 (0.7)	0.6 (0.0)	-1.5* (-0.8*)	1.5* (2.2*)
광공업생산지수	8.2	1.4	-6.4 (-6.1)	-9.7 (-0.9)	-7.6 (3.1)	-7.6 (3.1)	-6.0 (-1.6)	-8.1* (-2.0*)	-0.5* (5.5*)
제조업생산지수	8.4	1.4	-6.7 (-6.4)	-10.0 (-0.9)	-7.8 (3.3)	-7.8 (3.0)	-6.2 (-1.6)	-8.3* (-2.1*)	-0.6* (5.6*)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5.8 (0.2)	6.4 (1.2)	2.3 (-0.3)	1.2 (-0.9)	3.0 (0.6)	1.7* (0.3*)	1.7* (0.3*)
소매판매액지수	5.8	-0.3	-2.3 (-1.4)	-0.4 (1.1)	-0.2 (-0.3)	-0.6 (0.6)	1.5 (0.9)	-1.7* (-3.3*)	-4.8* (-0.3*)
설비투자지수	9.6	3.3	9.6 (-0.2)	-0.5 (-8.8)	-1.2 (1.3)	-4.9 (3.1)	-2.5 (-1.1)	-11.2* (-8.9*)	-14.9* (3.6*)
건설기성액	-6.7	2.7	6.4 (4.9)	11.5 (4.6)	8.9 (-0.8)	5.7 (0.7)	8.8 (-2.2)	10.5* (0.8*)	12.3* (4.4*)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7	108.2	108.9	108.8	110.2*	110.3	110.3*	110.0*	110.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4	100.9	100.5	99.7	100.2*	100.3	100.1*	99.6*	99.4*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6	109.4	109.9*	109.8	110.5*	111.1*	111.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	100.3	100.0	99.0	98.7*	98.6	98.9*	99.3*	99.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1.1%)와 의복 등 준내구재(-0.6%) 판매의 전월비 감소폭이 현저히 축소되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 판매가 소폭이나마 증가하면서 전월비 기준 감소폭이 축소(-3.3% → -0.3%)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0.6%)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운송장비(13.1%)에서 큰 폭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3.6%)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토목(13.8%)과 건축(1.8%) 공사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4.4%)
-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과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의 하락에도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전월비 0.1%)하고, 선행종합지수 역시 건설수주액 등의 하락에도 장단기금리차, 재고순환지표, 코스피지수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0.3%)

□ 물가 : 9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3.7%

- 9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1.6%)와 교통(1.3%), 주택·수도·전기·연료(1.3%) 등에서 상승한 반면, 음식·숙박(-0.2%) 등에서 하락함에 따라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3.7%,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
- 8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전월비 4.7% → 7.3%)되고, 공산품 가격이 4개월 만에 상승(0.0% → 1.1%)한 데다, 서비스 가격 역시 상승(0.3% → 0.3%)하면서 전월비 기준 0.9% 상승(전년동월비 1.0%)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2.5	5.1	4.7 (1.1)	3.2 (0.6)	3.1 (1.0)	3.7 (0.2)	3.3 (0.3)	2.7 (0.0)	2.3 (0.1)	3.4 (1.0)	3.7 (0.6)
근원물가	1.8	4.1	4.9 (1.3)	4.3 (0.9)	3.9 (0.4)	4.6 (0.4)	4.3 (0.4)	4.1 (0.2)	3.9 (-0.1)	3.9 (0.2)	3.8 (0.3)
생산자물가	6.4	8.4	4.4 (0.1)	0.6* (-0.3*)	-	1.6 (-0.1)	0.5 (-0.4)	-0.3 (-0.2)	-0.3* (0.3*)	1.0* (0.9*)	-
근원물가	6.0	6.4	2.6 (0.3)	0.3* (0.1*)	-	1.0 (0.2)	0.1 (-0.3)	-0.4 (-0.3)	-0.4* (0.0*)	0.5* (0.4*)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9월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둔화

-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현저히 확대되면서 전월비 큰 폭으로 증가
(2023년 8월 +8.2조원 → 9월 +11.3조원, 대기업 +4.9조원, 중소기업 +6.4조원)
 - 대기업 대출이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
 - 중소기업 대출도 기업들의 명절자금 수요와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 회사채는 은행대출 등 대체 조달수단 사용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3년 8월 -1.1조원 → 9월 -0.8조원)
- CP·단기사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순발행 기조로 전환
(2023년 8월 -1.8조원 → 9월 +2.0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과 달리 상당폭 증가
(2023년 8월 +0.5조원 → 9월 +2.9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9월말 잔액
	1~9월	9월	1~9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은행 원화대출	72.6	7.7	89.9	9.4	67.9	8.7	8.2	11.3	1,238.2
(대 기 업)	4.0	0.2	27.9	4.6	28.2	3.8	2.9	4.9	244.0
(중소기업)	68.7	7.4	62.0	4.7	39.8	4.9	5.2	6.4	994.2
〈개인사업자〉	30.6	3.5	20.1	1.8	7.0	1.5	1.2	0.8	449.7
■회사채 순발행	16.9	2.0	-2.1	-0.6	2.0	-1.1	-1.1	-0.8	..
■CP 순발행	7.5	-1.3	15.6	-0.4	3.2	0.6	-1.8	2.0	59.7
■주식발행	24.9	1.8	20.2	0.3	6.5	0.6	0.5	2.9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 9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타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2023년 8월 +6.9조원 → 9월 +4.9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영업일 감소와 금융권 대출 취급조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8월 +7.0조원 → 9월 +6.1조원)

- 기타대출도 명절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 (2023년 8월 -0.1조원 → 9월 -1.3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9월말 잔액
	1~9월	9월	1~9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은행 가계대출	63.9	6.4	-1.2	-1.3	21.8	5.9	6.9	4.9	1,079.8
■주택담보대출	47.9	5.6	14.7	0.9	35.0	5.9	7.0	6.1	833.9
■기타대출	15.9	0.8	-16.0	-2.1	-13.1	-0.05	-0.1	-1.3	244.7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0월 초순(10월 4일 ~ 12일) 금리 & 원/달러 하락 전환

- 국고채(3년) 금리는 9월중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심화, 美 국채금리의 상승세 등으로 동반 상승하고, 10월초에 2022년 11월초 이후 최고치인 4%를 넘어선 이후 고금리 장기화 경계감과 중동의 정정 불안 등으로 하락세 (10월 4일 4.108% → 10월 12일 3.932%, -0.18%p)
- 원/달러 환율은 9월중 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중국과 일본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제한적 상승세를 보이고, 美 달러화 강세로 10월초 한때 1,350원을 돌파한 이후 글로벌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하락 전환 (10월 4일 1,363.5원 → 10월 12일 1,338.5원, -25.0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4	2/4	9월	10.12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27	3.66	3.88	3.93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07	4.47	4.64	4.72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59	3.75	3.83	3.82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01	4.02	4.08	4.13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338.5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81.4	907.0	901.3	899.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8월중 전년동월비 -0.6%, 전월비 +5.6%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16.8%), 반도체(8.3%), 자동차(7.8%) 등에서 증가한 반면에, 전자부품(-22.3%), 기계장비(-12.7%), 섬유제품(-5.5%), 1차금속(-2.0%), 화학제품(-1.7%)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0.6%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2%)와 중공업(0.5%)에서 각각 2022년 7월과 8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고, 경공업(-5.9%)에서도 감소폭이 축소

- 전월비 기준으로는 석유정제(-6.0%)와 전자부품(-3.8%) 등을 제외하고, 반도체(13.4%)와 기계장비(9.7%), 자동차(5.7%), 섬유제품(5.1%), 기타운송장비(4.8), 화학제품(1.3%)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5.6%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0.0)는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1.7%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보합(0.0%)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4.6%로 전월에 이어 0.3%p 추가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8월중 재고 증가폭(5.2% → 10.5%,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확대된 반면, 출하는 감소폭이 축소(-5.9% → -2.8%)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4%로 전월과 달리 3.4%p 상승(3개월 만에 상승)

□ 서비스업생산 : 8월중 전년동월비 +1.7%, 전월비 +0.3%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6%), 정보통신(-1.2%) 등 업종에서 감소하고, 운수창고(8.1%), 전문·과학·기술서비스(2.1%),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2.6%)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7% 증가

- 전월비로는 운수창고(1.0%), 숙박·음식점(3.0%), 도소매(0.1%) 등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0.6%),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1%) 등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3개월 연속 소폭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2.1%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0.3%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107.1	99.5	104.6	107.5	103.9	105.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6.4	-9.7	-7.6	-6.0	-8.1	-0.5	5.5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107.1	98.8	105.2	108.2	104.0	106.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6.7	-10.0	-7.8	-6.2	-8.3	-0.6	5.6
섬 유	113.4	2.0	-3.5	-10.1	-7.8	-9.1	-7.2	-10.0	-5.5	5.1
화 학	854.2	8.6	-9.9	-20.1	-20.4	-16.1	-10.8	-7.3	-1.7	1.3
철 강	496.6	5.2	-8.5	-23.3	-6.5	-2.6	-3.2	-5.6	-0.8	-0.5
반도체	2,023.8	26.8	7.6	-19.8	-33.8	-18.6	-15.8	-15.0	8.3	13.4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10.8	0.7	-14.7	-12.3	-42.1	-8.8	20.6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1	17.6	-12.6	-16.8	-11.5	1.0	28.7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5.9	-4.3	-13.9	-8.4	-15.9	-14.2	1.5
기계, 장비	737.3	12.1	1.1	5.4	0.7	-6.5	-7.8	-14.8	-12.7	9.7
자동차	987.5	6.3	9.1	17.5	21.6	15.4	10.8	6.2	7.8	5.7
조 선	66.0	-7.2	20.7	23.4	19.6	4.6	7.7	6.2	12.4	9.9
- 중 공 업	-	9.9	1.5	-7.3	-10.7	-7.7	-6.2	-8.2	0.5	6.3
- 경 공 업	-	1.3	0.4	-4.0	-5.6	-8.3	-6.1	-8.2	-5.9	1.7
- 제조업ICT	-	19.3	2.2	-19.7	-30.5	-19.1	-15.7	-16.5	1.2	11.1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0	112.0	117.9	111.8	115.2	117.6	114.0	114.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5.8	6.4	2.3	3.0	1.7	1.7	0.3
도소매	193.9	4.3	2.7	1.1	2.8	-1.1	0.9	-1.9	-3.5	0.1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7	17.3	9.5	8.0	7.3	8.1	1.0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9.8	16.3	-2.7	-4.6	-7.3	-4.6	3.0
정보통신	88.9	12.2	1.7	-1.0	-1.7	-3.8	-3.4	-0.6	-1.2	-1.1
금융및보험	167.4	8.0	8.4	12.5	10.7	7.1	7.1	6.9	5.7	0.3
부동산	38.7	2.3	8.0	6.0	4.1	3.0	3.4	2.8	2.1	-0.3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0.3	1.8	2.6	4.3	3.7	2.1	-0.6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4.2	5.6	3.5	2.6	3.2	2.6	-0.1
교 육	73.5	1.5	1.2	0.3	1.1	0.2	1.4	1.4	0.4	-0.6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6.3	5.7	3.5	3.5	3.9	5.7	0.9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6.6	20.8	7.0	9.1	-9.0	-0.4	6.2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5.9	13.8	5.4	7.5	4.4	6.7	3.4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4.8	0.6	-1.6	1.6	-2.8	1.0	4.6
- ICT서비스업	-	6.2	5.5	2.4	2.2	0.8	2.0	2.0	2.1	0.3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 용

□ 취업자 수 : 9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지난 9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소폭 감소에 그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0.9% → 1.1%)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감소세(-1.6%)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크게 둔화(-1.1% → -0.2%)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2개월 연속 확대(1.6% → 1.7%)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0.0% → 1.7%)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는 전월 수준을 유지(0.9% → 0.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4.4% → 5.2%), 정보통신업(4.5% → 4.7%)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에,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4.9% → 4.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2.2% → 1.6%),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6% → 1.2%)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2.0%)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6%로서 전월과 달리 재차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산업	27,273	28,089	27,767	28,693	28,687	28,835	28,812	28,686	28,678	28,698
전년동기비	1.4	3.0	1.5	1.2	0.9	1.2	1.2	0.7	0.9	1.1
농림·어업	0.9	4.6	-1.6	-0.3	-1.3	-0.9	-0.8	-2.5	-1.1	-0.2
제조업	-0.2	3.1	-0.8	-1.1	-1.3	-0.9	-0.2	-0.8	-1.5	-1.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1.8	1.5	1.8	1.6	1.3	1.6	1.7
건설업	3.7	1.6	-1.0	-2.4	-0.1	-3.0	-2.8	-2.0	0.0	1.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2	1.8	1.0	1.8	1.6	1.3	0.9	0.9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4	1.3	1.2	1.5	1.1	0.5	1.0	2.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9	2.8	2.2	2.9	2.6	2.2	2.4	2.0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7	2.6	2.6	2.5	2.6	2.8	2.4	2.6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9월 수출 4.4% 감소, 수입 16.5% 감소,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

○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4% 감소한 547억 달러, 수입도 16.5% 감소한 51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반도체·석유제품 등에서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 실적치를 기록한 데다, 자동차·선박·일반기계·가전·디스플레이·철강 등 6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미국·EU·중남미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비 감소율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

- 수입은 전년동기비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36.3%)하고, 반도체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9.1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5.8%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0.5%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16.2% 감소한 약 75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13 (-12.7)	1,558 (-12.0)	1,571 (-9.7)	521 (-15.4)	542 (-5.9)	505 (-16.2)	519 (-8.3)	547 (-4.4)
수입	6,151 (31.5)	7,314 (18.9)	1,740 (-2.2)	1,596 (-13.0)	1,507 (-21.6)	543 (-14.0)	531 (-11.7)	487 (-25.4)	510 (-22.8)	510 (-16.5)
무역수지	293	-478	-227	-38	64	-22	12	18	9	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9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자동차·선박·가전 등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6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 반도체 : 수출단가 하락세로 전년동기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에 따른 수급 개선과 IT·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및 AI 서버용 고부가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올해 월간 기준 최대 수출액을 기록

- **자동차** : 북미·EU 등 주요 시장에서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국산 친환경차 및 SUV 차량 수출과 판매 증가, 아세안·인도 등 현지 특화 모델 출시를 통한 전략시장 공략 등에 힘입어 수출이 15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북미·EU 내 현지공장 생산 정상화 및 전기차 지원 정책에 따른 관련 부품 수요가 증가세이나, 월말 추석 연휴에 따른 국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 전환
- **선박류** : 지난 2021년의 선가 상승분이 반영된 수주물량 생산 및 인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LCD 일부 품목들의 가격 반등과 출하량 증가, IT제품 및 자동차 분야 OLED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고가형 모델 비중 확대와 고부가가치 부품 탑재 등에 따른 평균 단가의 상승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 영향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8개월 연속)
- **철강** : 주요 시장인 일본 내 설비 축소 영향 우려에도 중국 철강업체들의 감소에 따른 한국산 철강 수요 증가와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한 철강 수요 등에 힘입어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섬유** :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물량의 점진적 증가에도 섬유원료·직물 등 대다수 품목에서 전년동기비 동반 감소함에 따라 수출이 16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업계 정기보수 종료 이후 가동 재개로 가동률이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도의 고유가에 따른逆기저효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
- **석유화학** : 업계 가동률 상승에도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16개월 연속 감소세
- **일반기계**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따른 북미·중동 지역으로의 산업용 기계 수출 증가와 유럽 내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 생산·설비 교체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가전 수요가 호조세인데 다,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PC·태플릿 등 전자제품 수요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축소가 장기화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자동차	24.2	16.4	43.9	48.9	17.1	49.2	58.3	15.0	28.7	9.5
자동차부품	22.2	2.4	-3.7	1.0	0.4	-0.8	5.5	-0.5	5.9	-3.5
선박류	16.4	-20.9	2.0	21.3	-3.7	-47.8	98.9	-30.9	35.2	15.4
일반기계	4.6	2.0	-2.0	5.6	6.8	1.4	7.9	3.1	7.7	9.8
철 강	36.9	5.7	-15.8	-5.7	-5.7	-8.9	3.1	-10.4	-11.3	6.9
석유화학	54.8	-1.4	-22.3	-24.2	-14.4	-26.6	-22.2	-24.0	-12.1	-6.1
석유제품	57.7	64.9	-0.5	-34.8	-28.6	-34.9	-40.0	-39.7	-35.1	-6.8
섬 유	14.0	-4.0	-15.2	-11.2	-11.7	-15.0	-2.8	-15.4	-10.9	-8.4
가 전	24.0	-7.4	-8.5	-7.5	7.6	-13.7	3.3	2.5	12.2	8.5
무선통신기기	45.9	-10.4	-13.4	-20.8	-7.9	-12.1	-12.3	-15.3	-7.8	-3.1
컴퓨터	24.7	-4.7	-61.9	-61.6	-48.0	-57.5	-53.5	-33.4	-54.6	-53.9
반도체	29.0	1.0	-40.0	-34.8	-22.3	-36.2	-28.0	-33.6	-20.6	-13.6
디스플레이	18.9	-1.1	-39.5	-16.5	1.2	-7.4	-11.1	-4.6	4.1	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9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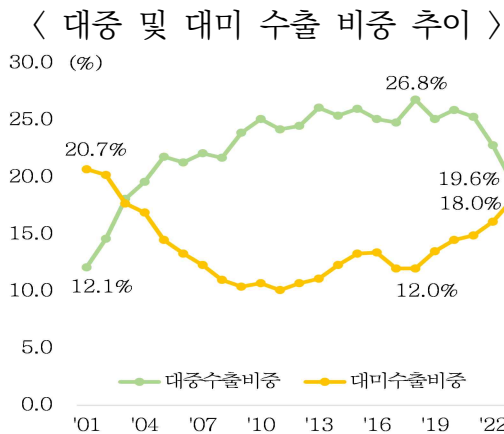
부록	대중·대미 수출 특징 분석
-----------	-----------------------

KDB미래전략연구소(2023년 9월)

- 우리나라 수출은 '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감소하고, 무역적자는 '22년 3월~'23년 5월에 지속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기계 등과 대미 수출은 양호하나, 반도체와 대중 수출은 악화하는 등 차별화 양상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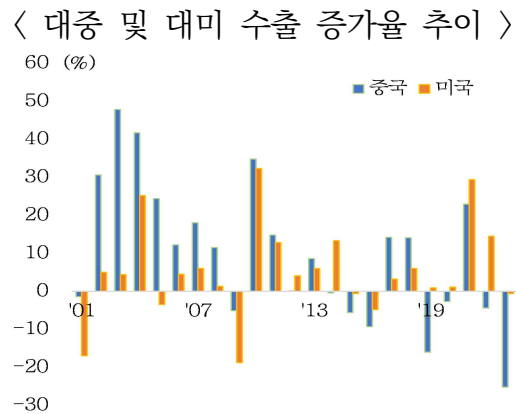
□ 최근 대중·대미 수출 현황

- 중국은 '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19.6%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으로, '23년 1~7월 대중 수출이 전년동기비 25.9% 감소
 - 대중 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가 전체 대중 수출의 악화를 견인하고, 이러한 대중 수출 둔화는 '10년대 이후 우리 수출 둔화의 주요 원인
- 미국은 제2의 수출국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 수출 둔화 속에서도 호조
 -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23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54.2% 증가한 147억 달러에 이르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
-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을 추월한 '03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나, '15년 이후 대중 수출 비중이 하락하고, 대미 수출 비중은 상승
 - 이에 따라 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변화하는 추세



자료 : 무역협회.

주 : '23년은 1~7월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주 : '23년은 1~7월 기준.

□ 대중 수출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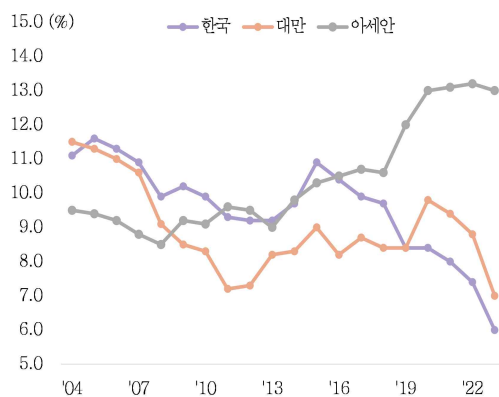
- 최근 중국이 코로나 봉쇄로 누적된 경제 통제 여파가 서비스업·소비 중심의 경기 반등과 과잉재고 축적 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중간재 수출에 악영향
 - 특히 반도체는 코로나 유행 이후 전세계 수요 증가에 따라 축적된 과잉재고가 경기 둔화로 해소되지 못하면서 우리 수출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강화로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이었던 석유화학, 디스플레이가 '14년 이후 최근까지도 정체 또는 감소
- 기술 수준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중·저위 기술 영역은 자국산으로 대체된 반면, 고위기술 제품 위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
- 또한 중국의 대ASEAN 수입 비중의 증가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하락

□ 대미 수출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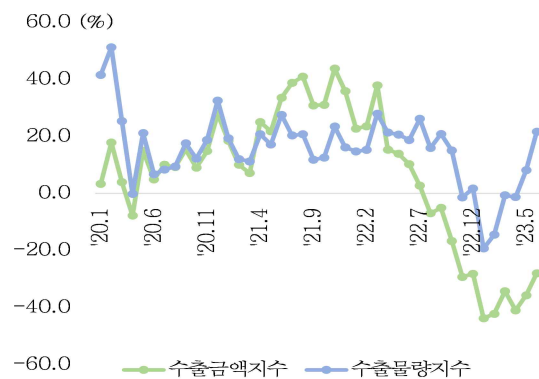
- '21년 이후 미국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소비 여력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
-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표 소비 품목인 자동차 수입이 큰 폭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전기차 수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점유율도 상승
- 리쇼어링 정책 등에 따른 제조업 투자, 인프라 투자 활성화, 친환경 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기계·전기차 배터리 등 수출도 확대
- 전기차 전환 의무 행정명령('21년)과 IRA('22년) 등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밀화학 원료, 전기차 배터리 수출도 상당폭 증가
- 반면에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미국의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버 투자 축소가 이어졌고, 그 결과 최근 대미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중국의 주요 수입국 비중 〉



자료 : 무역협회.

〈 반도체 수출 금액·물량 지수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월비 증가율.

□ 결론 및 시사점

- 장기적으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수출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이 긴급
- 향후 대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고,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ASEAN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
- 또한 미국의 인프라, 친환경, 첨단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기회요인인 바, 이를 활용하여 미국 시장 진출을 더욱 늘려나갈 전략 마련이 중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0.9일)	(10.10일)	(10.11일)	(10.12일)	(10.13일)
		 9월 생산자물가	 8월 기계수주  9월 소비자물가	 9월 소비자물가  9월 수출입통계  8월 산업생산  9월 고용동향
(10.16일)	(10.17일)	(10.18일)	(10.19일)	(10.20일)
 8월 산업생산(수)  8월 소매판매(수)  8월 수출입통계	 9월 산업생산  9월 소매판매	 9월 산업생산  9월 소매판매  9월 고정투자  23.3분기 실질GDP  9월 소비자물가(수)	 9월 무역수지(잠)  9월 경기선행지수	 9월 소비자물가
(10.23일)	(10.24일)	(10.25일)	(10.26일)	(10.27일)
	 9월 생산자물가	 8월 경기선행지수(수정치)  10월 소비자동향조사	 ECB 통화정책회의  23.3분기 실질GDP(예비치)  9월 내구재수주잠  10월 기업경기실사수  23.3분기 실질GDP(속보치)	 9월 무역수지(수)  9월 개인소비
(10.30일)	(10.31일)	(11.1일)	(11.2일)	(11.3일)
 BOJ 통화정책회의  10월 경제제감지수	 9월 산업생산(잠)  9월 소매판매(잠)  9월 실업률  10월 소비자물가(예)  23.3분기 실질GDP(예비치)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연준 FOMC(~11.1일)  9월 산업활동동향	 10월 ISM 제조업지수  10월 수출입통계	 10월 소비자물가	 9월 실업률  10월 ISM 서비스업지수  10월 고용보고서